A Study on The Grunge Fashion of the 1990's and 2000's

Yu Kyoung Chung · Key-Sook Geum*
Dept. of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Dept. of fiber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2004. 5. 1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iscover the hidden value of non-mainstreamers style which has been overlooked for the past decade by investigate the aesthetics and formative features of the Grunge fashion. The Grunge fashion was derived from explosive popularity of the early 90's grunge music. Grunge was the alternative anti-thesis against mainstream pop music and anti-fashion against mainstream fashion. Dirty, rubbish grunge style of the poor street youth and grunge musicians have raised to the high fashion by designers. And These trial of designers made people to notice the value of the non-mainstreamers street style like grunge. Actually, the grunge brought the shock with many argument to the 90's fashion field. But now, It became the classic of the street fashion. And It has potent influence on the music, culture and high fashion. The Grunge is a kind of links between music and fashion, street fashion and high fashion, sub culture and mainstream culture, the past and now. Grunge isn't only a fashion of appearance. It is the attitude of wearing clothes and living a life. Variety grunge style in the international street fashion, high fashion, typical musicians's fashion of the 1990's and the 2000's was researched for this study. These materials were gathered from music magazines, fashion magazines, movies, musics and books. As a results of analysis, Grunge has the formative features like mix & match, layering, patchwork, primitive edge, rag, retro, recycle, kinderwhore, sneer scribbling, disheveled hair. Grunge also has the Aesthetic features like the beauty of disorder · disharmony · incompleteness · kitsch · poverty · alternative · eclectic · symbiosis. For the last 10 years, These features changed our fashion be more pluralistic and dynamic.

Key word: Grunge, Grunge music, Anti fashion, Pluralism, Mix match layer; 그린지, 그린지 음악, 안티패션(反패션), 다현주의, 믹스 매치 레이어

I. 서론

‘그린지(grunge)’는 1990년대 초중반을 풍미한 일련의 음악사모와 그 패션물들에 붙어진 이름이다. 그 패션물 중 하나인 ‘그린지 패션’은 90년대 초 젊게 했다던 청년문화를 부활시키고 스트리트 패션의 지위를 격상시키면서, 하이패션도 보다 다원적인 가치와 스타일을 수용하게 만들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인기를 끌 고 그린지 및 알티버터크(Alternative) 음악은 90년대 한국 록 음악사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그린지 패션’에 대한 전지한 연구를 찾아보는 것은 힘들다. 한국에서 그린지는 무관심하게
지나쳐지거나 빈티지, 구매판매 등 다른 이름에 교묘 하게 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블로거, 트렌디하고 낯선 드디어인 신흥전, 구매 상점의 찾아온 참가자나 뮤직매치를 mix (mix match look)측과 같은 형태로 우리 인식이 달라지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문화의 패션에 길이 갔던 스타일이다.


본 연구는 그런지의 전성기인 1990년대와 포스트 (post) 그런지 시대에 활할 수 있는 2000년대로 시기를 나누어 각 시대의 미디어전시, 스트리트 패션, 하이패션 그런지의 조형성에 대하여 분석한 뒤, 각각의 조형성에서 도출된 조형미에 대해 정리하였다. 패션잡지, 옹알이문서, 스트리트 패션과 패션쇼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 그런지 옷과 영화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하이패션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오프柜台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발표한 작품들에서 발생해 일반인에게까지 전파되는 패션을, 스트리트 패션은 거리의 젊은이들에게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유행이 패션으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90년대 그런지 옷의 병설은 사실상 그런지의 흔한 90년대 초중반의 ‘시애틀(seattle) 그런지로 제한 서술하기로 한다.

II. 그런지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그런지의 전환

지금대는 기타 사운드를 의미하기도 하는 ‘ 그런지’라는 이중의 속어가 사람들의 입에 환자되게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소위 그런지라고 불리는 록 음악의 한 장르가 대중에게 인기를 끌 이후부터이다. 그런지 음악은 사운드를 중심으로 발전된 음악사조로, 무겁고 저저분한 느낌의 북적한 사운드가 특징이다. 밴드마다 음악 스타일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그 린지 밴드들이 언더그라운드의 인디밴드로 시작하여 주류 밴드에 대한 인터내이(anti-thesis)로 작용하면서 점은 세대를 대변했으며, 전 시대에 대한 대안의 역 할을 했다는 공동점이 있다. 그런지 음악은 X세대로 불리던 당시 젊은 세대의 정서와 맞물려 큰 인기를 얻었고 이 영향력을 사회, 문화, 예술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일례가 90년대 초중반의 ‘그런지 패션’, 혹은 ‘그런지 록’의 유행이다. 지금은 남부한 스타일로 특별한 형식 없이 낯은 옷들을 아무렇게나 걸쳐 입는 뮤직매치 레이어가 특징적 그런지 패션은, 90년대 초 뮤지션들이 즐겨 입은 후 젊은이들의 거리패션으로 유행하였고 하이패션계에도 영향을 주어 점점 유행했다. 이후 현재까지 그런지는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악력적인 동정 하이패션에 대한 반(反)패션인 그런지에는 전 시대의 힙합, 퍼크로, 브레인아웃, 페스티, 푸어(poor)록, 레이어록, 재활용패션, 에코로지패션 등 영향관계에 있으며, 힙파크나 프로그램 등은 세대의 생각을 대변하면서 기성세대의 가치에 도전하는 면세시 강한 패션으로도 하다.

2. 시대적 배경

X세대의 시대인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그런지가 처음 표면위로 등장하여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실상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당시는 21세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최근 세기의 과학과 물질문명 발달이 기회인 인간상상, 완전과학적, 등에 대한 의심도 폐해진 시기이다. 이로 인해 인류의 환경, 자연주의, 애투포로, 재활용, 복고적인 그런지음악과 언어어그레도음악이 유행했으며 이런 개념들은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러한 시대의 미국은 울악의 경제정체를 겪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10대 후반과 20대를 지나고 있던 X세대에게 디자인하고 고양한 하이패션 혹은 물질만능주의의 적에 빠진 타락한 여자("그런지의 미학과 정치", 1996년) 부모세대에 대한 환멸, 시대에 환조졌다. 대규모의 반대와 저항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생애적, 민주주의 소비, 정치, 예의 등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에게 인터내이로서의 그런지 록은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한편 90년대 이후 PC 보급과 인터넷 열풍으로 인
해 형성된 사이버문화는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젊은 대중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다양하고 가변적인 문화들. 다원적인 비주류 문화들이 주류문화와 더불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90년대 이후의 젊은 세대를 위시한 스트리트 패션의 부상과 직접되며, 스트리트 패션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즉각 수용되기 시작했다.

3. 음악적 배경

그런지 패션의 유행에는 경기침체, 재취환패션과 복고의 유행, X세대 등극과 같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것은 그런지 음악이다. 그 런지 패션은 라이징합니다 80년대 패션에 반한 것처럼, 그런지 음악 역시 80년대의 화려한 주류 음악과 확연히 다른 면을 보여준다. 쉽게 3M(MTV・Madonna・Michael Jackson)으로 요약될 수 있는 80년대 패션, 시각을 충격시키는 맨스무직과 과도한 화장, 화려한 의상의 스타일로 대변될 수 있다. 80년대 주류 록 음악 역시 상업적인 패와 결합되면서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록 스타들은 타이트한 가죽바지로 남성피워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와 시애틀 레그로운드에서는 주름음악과 상반되는 특록 구사하며 훗날 그런지로 명명되는 인디밴드들이 결성되기 시작한다. 그들 중 '니바나(Nirvana)', '펄잼(Per Jam)' 등이 주류입성 후 별난적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는 80년대의 신보수주의의 호흡 속에 잠긴던 청년문화를 깨우며 무소비제국이 풀리던 시대상 황과 80년대의 에어러트적 사회풍조에 대해 황홀을 느끼고 있던 당시의 청년반향을 사회표현 위로 분출시키는 계기가 됐다(신현준, 1996). 골반 즘 악기를 부수기도 하는 이들의 음악 스타일은 대체적으로 지저분하고 혼돈스러우며 점점이 아닌 원초적 사운드와, 압도한 현실에 대한 자조와(?)의식적 시(詩)적 가사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의 스타일은 전 시대의 대표적 반환파인 자유와 이성을 추구하는 힘과, 자기 파괴적 허무주의적이며 거짓고 취조적인 풍경을 반복 계승하고 반복 부정하는 행위를 취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록이 극단적인 남성중심의 세수얼리티를 보여준 반면, 그런지는 보다 다원적이고 대안적인 성체성을 보여주며 이것은 그들의 의상을 통해서도 표현되었다. 그 중 여성중심 밴드인 '홀(Hole)'의 커트니 러브(Courtney Love)가 보여준 '킨더호어(Kinderhoare)' 룩은 곧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와 안나 수이 등에 의해 캉코크에서 제작되어 반항을 일으켰다. 그런지의 인기는 언더그라운드의 순수성과 자연주의의 상업 성 사이에서 고심하던 그런지 뮤지션의 자살과 더불어 90년대 중반 이후 수그러들게 되었다.

III. 1990년대의 그런지 패션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그런지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10대들의 정서를 반영한 그런지 음악이 크게 유행을 했다. 이것은 옷차림과 문화로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지 패션은 스트리트에 머물지 않고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동안 획기적인 스타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비평가와 소비자로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 1990년대 그런지 음악과 그런지 패션의 관계

20세기 이후 대중매체의 비약적인 발전은 대중과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급증시켰다. 대원상이라는 대중문화의 특성은 곧 여러 문화와 예술의 장르가 그 영역을 헐고 상호영향을 주며 공생해가도록 만들었다. '패션과 음악' 역시 20세기 이후 더욱 관계가 링크해진 사례로 오늘날 대중 음악가들은 패션을 통해 그들의 음악과 스타일을 가시화하며, 대중 음악가들의 음악과 패션은 그것을 수용하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디자이너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준다. 특히 장르의 음악을 신호하는 젊은이들의 비상한 패션스타일을 고수하는 곳에서 볼 수 있다, 대중음악과 패션은 그 수용자의 정체성, 가치관과 직결되는 것이다. 특정 스타일을 고수함으로써 자신들을 주류문화 또는 타인과 구분 짓고자 하는 반문화적 현실은 청년문화의 스타일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청년층을 위한 스트리트 패션은 대부분 펑크, 힙합, 테크노 등과 같이 대중음악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게 된다.

그런지 뮤지션들의 패션 역시 사기 가난한 주변부 젊은이들의 패션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화려했던 80년대의 주류와는 거리가 있었다. 음악도, 패션도, 삶의 태도도 모두 단정지 못하고 혼동이었던 이들 의 스타일은, 이후 영향을 주며 되는 하이패션과 스트리트의 그 자체에 비해 과격하고 정체되지 않은 것
<table>
<thead>
<tr>
<th>특성</th>
<th>대표적 스타일</th>
<th>특성</th>
<th>대표적 스타일</th>
</tr>
</thead>
<tbody>
<tr>
<td>미완성적 마무리</td>
<td>무릎이 절어진 청바지</td>
<td>지적분하고, 형식적인 해이스타일</td>
<td>일체의 인위적 장식을 배제한 반문화적 스타일</td>
</tr>
<tr>
<td>남고 해진 무대 의상</td>
<td>상업적으로 성공한 스타가 된 뒤에도 변하지 않고 그들의 스타일을 고수함</td>
<td>미스매치 데어 &amp; 패치워크</td>
<td>일일적인 소재와 스타일간의 조합</td>
</tr>
<tr>
<td>남은 플레이트 둔연데 셔츠 &amp; 복고식 프린트 셔츠</td>
<td>90년대 초 경기침체와 복고 불길의 영향</td>
<td>여성, 낙서 우스꽝스러운 의상</td>
<td>80년대 쿠플스의 남성우월주의와 달리 다립적 철저적인 성 정체성을 보여준</td>
</tr>
<tr>
<td></td>
<td>90년대의 멜리티파크, 소미지향적 문화에 대한 반발</td>
<td></td>
<td>사회와 정치에 대한 직접 비난 대신, 조소와 유머가 담긴 낙서 의상</td>
</tr>
<tr>
<td></td>
<td></td>
<td></td>
<td>통해 별도적 방법으로 극력</td>
</tr>
</tbody>
</table>

![그림 1](https://example.com/1.png)

<그림 1> Courtney Love, Kinderwhore, 90년대 초
이 그 특징이다.

뮤지션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들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된 컬러는 경기침체를 반영해 톤 다운된 그래이, 카키, 블루 등이다.

한편 그러한 패션은 남녀 모두에게 받아들여졌지만 표현이 동일하지만은 않았으며, 여성 그러한 뮤지션들에게서는 남자들과 또 다른 의미의 저항과 또 다른 형제의 그러한 패션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 뮤지션들은 소녀와 창녀의 이미지를 남나드는 극단의 양심을 보여 주는데, 이 중 커페니 러브의 키발적 옷차림에 불어진 '稔도호어(어린이창녀)'라는 이름은 그들의 스타일을 잘 요약해준다. 마구 자른 듯한 머리, 얼룩진 화장, 구멍 난 스파킹, 붉어진 베이비 블 데레스, 속옷과 같은 의구선이 거의 없는 의상을 둘러싼 그녀의 과감한 패션은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진투적이며 자기 자신이 여성의 혹은 정체성을 드러내며 고정관념에 반항하는 '도전'의 의미로 평가되어진다(그림 1).

2.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그러지

핑크가 패션의 음악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그러
지는 음악이 패션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 패션과 대중음악이 이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줄고 예술의 형태가 함께 발전하였을 때 음악과 패션은 시대정신의 표현으로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90년대 초 ‘시대에의 피해자’로 주변을 배회하던 청년들은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끝이 아닌 청바지를 입고 과격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지 팬들의 대중화가 되었다. 당시의 젊은 청년들은 그들과 많은, 그러나 그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는 그런지에 열광한다. 엽elligent 청년문화와 정체 불량은 음악의 힘을 빌어 마침내 80년대의 파워드레스상을 종식시키고 시대가 그런지 패션 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런지 음악이 반 항구로 가득한 90년대 무렵엔 디자이너들도 그런지를 거론하게 된다. 90년대 초, 거의 모든 패션 광고에는 80년대 의 완벽한 수족모델 대신 증가식이고, 아예 가고, 머리는 짧았는데 흔들어진 미완성의 그런지 모델들이 있었다. 당시 젊은 문화를 반영한 영화 주인공들 또한 그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지 모델과 배우를 맡은 젊은이로들 널쳐나게 된다. 젊은이들 속에서 생겨난 음악이 주두로 음악계를 거쳐 젊은이들에게 제수용되고, 이것은 하이패션에 수용되었으며, 하이패션은 또 다시 거켜 젊은이들에게 수용되게 된 것이다. 그런지는 반복한 패션 혼란의 방향을 변화시켰다. 물론 스타리트의 그런지의 작용자는 그들의 그것에 비해 순화된 형태로 변형되어 받아들여졌으며, 흔들어진 하이패션, 흔들어진 청바지, 빈티지, 복고적 꽃무늬 드레스와 투박한 문화의 믹스패치, 폴리에드 플란넬 아이템 등이 선호되었다.

3. 1990년대 하이 패션의 그런지

93년 S/S시즌,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는 그런지 음악과 ‘컨디션어 록’, 가난한 거리 젊은이들이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런지 혼합성을 통해 이 젊은 것으로서 반항할 수 없었던 믹스패치 레이어 록을 선보여 촉각을 주었다. 바로 전인 80년대까지 부자처럼 보이던 스타일과, 모든 것이 세련되게 매치된 토폴록(total look) 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혼합성이 주는 촉각은 훨씬 더했다. 평가도 극단적이어서 ‘기존 가치에 반기를 든 뉴 패션’이라는 차이와 ‘쓰레기’라는 흔히 들었다(한국경제신문, 2002). 실제로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이 시도는 이후 90년대의 패션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 패션계가 더 많은 가능성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94 S/S 시즌에는 언나 수이가 킹더호이를 차용한 펌프신을 선보였고, 뒤를 이어 V.웨스트우드, D&G K.러거렐 드와 같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런지의 영향을 받아 틀을 선보임으로써 그런지는 스타리트에서 생겨나 하이패션에까지 영향을 행사한 90년대 초를 대표하는 틀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것은 스타리트 패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영역이 하이패션에까지 확대되도록 만들었으며, 90년대 이후 패션의 유명이 낮은 곳서 위로 전파되는 상향성과 방식이 돌아오는데 일조했다. 90년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사용한 그런지의 조형성 중에는 믹스패치 레이어가 가장 두드러지고, 2000년대에 이어졌을 때 메날 아이템의 사용이 적으며 스타리트 흥이 상당히 조정된 형태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그림 2).

IV. 2000년대의 그런지 패션

미니멀리즘의 대유행과 함께 그런지가 수그러들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의 시대는 포스트 그런지 시기라 볼 수 있다. 90년대 말부터는 나하면 러시 슈, 클래식한 레트로룩(Retro look)이 주류였다. 이후 동 21세기의 극도로 화려한 맥시길 클램프록(maximal glam look), 이와 대조적인 인(zen)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곧 6-70년대의 로맨틱 힌피, 보헤미안룩의 유형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아웃더용의 룩이나의 그룹, 무파 자유를 중시하는 보소(Bobos: bourgeois bohe-
한국외교학회지 Vol. 29 No. 3/4, 2005

mian의 개념이 패션을 비롯한 문화전반에 걸쳐 크게 유행하면서 구체의용을 다시 써내 입은 듯한 빈티지와 그린지로 돌아왔다. 21세기의 그런지는 전성기의 그것 보다 부드러워지고 글래머러시해졌으며, 다른 스타일 들과 믹스되어 보다 심층적인 형태가 되었다.

1. 2000년대 음악과 패션의 관계

시대를 그런지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대신 포스트 그런지로 분류되는 록 밴드들이 이어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음악은 그런지를 연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종 밴다나 팁코, 하드코 어 릴, 브릿 팝, 테크노 등 다양한 장르의 팝음악들과 크로스오버(Crossover)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크로스오버 현상은 특히 90년대 이후 음악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록 음악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들이 융합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장르의 구분이 두의미해지거나 충돌하는 장르들이 잇달아도 했다. 음악 스타일이 다양해진 반면 뮤지션들의 패션도 다양해졌으며 음악에서의 크로스오버는 뮤지션들의 패션으로 편제가 포함된다. 21세기의 수많은 록 스타들 중에 그런지 빈티지를 즐겨 입는 부류, 합음이나 테크노를 즐겨 입는 부류도 있으며, 피기스터운 이미지나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을 즐기는 부류도 있다. 록 이외의 합음, 라인, 다양한 랜스음악들이 2000년을 전후하여 인기를 끌면서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합음 패션은 피부색을 띠어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고, 흑인 뮤지션들이 라틴 스타들의 패션을 과감하고 색다른 색상의 핸드백, 패션의 형태를 잡으며 심이 없는 스타일의 패션을 즐기는 부류도 있으며, 그 외에도 잡 짬 패션, 보이브랜드 등 주류 패션의 패션은 케트 워크스트리트를 통해 재편되고 있다.

2. 2000년대 스트리트 패션의 그런지

모든 것이 으뜸이고 수용되는 90년대 이후 스트리 트 문화 흐름의 핵심은 '다원주의' 라 불 수 있다. 2000년을 전후로 품견(fusion), 글로벌리즘, 크로스오 버, 레이스리스(raceless), 하이브리드(hybrid) 등의 개념이 문화 전반에 걸쳐 대두된 것은, 기존의 주류가 지지기를 이어 잔소 하위집단이 제시하는 비주류적, 다원적인 가치들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위치 또한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주축으로 기치와 영기문화가 성행하는 현황은 그런지의 처음 등장해 충격을 주었던 90년대 초와 많이 닮겨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10여 년 만에 돌아온 그런지도 쉽게 수용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런지는 다른 여러 이미지들과 융합하며 순화되기도 했다. 또한 보 보스를 저장하는 요즘 세대들은 갑으로 부르는 드러네는 것보다는 자유, 본질적인 내면의 가치와 행복을 더 중요하며, 한편 젊은 세대들은 요즘 부르는 오히려 몇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 보이는 스타일을 좋기 위해 그런지, 빈티지, 엔티크 같은 구제패션의 개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중고시장에서 검색 난 것들, 지나고 버린 것들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지의 특징은 빈티지, 엔티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하고 일상적인 요소들 을 믹스패칭하는데 있다. 이로써 그들의 자유로운 감성이 표출되고 전혀 다른 조형성과 스타일이 만들어져며, 이를 반영한 스트리트 패션의 영역 또한 넓어 확대되고 있다.

1) 조형적 특성 분석

젊은이들의 거리패션 사진, 그들을 거닐던 패션브 랜드 의류사진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리된 2000년 대 스트리트 그런지의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빈티지

그런지 패션의 빈티지는 구체의용을 다양하게 믹스패칭하고, 리폼(reform)하는 등 다른 조형적 특성을 극복하고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빈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2000년대의 패션브랜드들로 하여금 빈티지로 보이는 신제품을 만들어 내게 하며, 빈티지 상품과 같은 대안적 형태의 상품들 역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미완성적 마무리, 페치워크, D.I.Y(do it yourself)

있는 청바지는 그런지의 대표적 아이템으로, 빈 디지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은 면밀한 청바지를 구체 로 보이도록 칼거나 덮개 만드는 작업을 즐긴다. 90 년대 말부터는 거의 모든 진(jean) 브랜드에서도 남고 쓰던 새 청바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헤어스타일을 하고 모양을 바꾼 사람들은 빈티지 패션의 패션에 대한 인기를 높이고 있다. 또 페치의 D.I.Y처럼 스스로 옷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필드피스도 늘어나고 있으며, 리폼 의류만 판매하는 상점도 인기를 끌고 있다.
(3) 믹스 매치 레이어
이질적인 소재, 색감, 패턴, 형태에 담합하기까지, 그
란지의 믹스매치레이어는 80년대의 토폴용이나 한
벌 수트와는 대조적인 특징으로, 다원적인 90년대 이
후 패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스타리트
와 하이패션 모두에서 활발히 임해낸다.
(4) 허리, 보מד미안
그런지는 허리, 보메디안의 남루하고 자유로운 분
위가 자주 중첩되거나 경기침체기에 나타났기 때문
에 부유했던 시대의 허피보다 저렴도, 저체도인 경향
이 있다.
(5) 기타
그런지가 10여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반복 다양
한 스타일과 믹스되어 표현되는데, 주로 평크룩, 힙
합 록, 스포츠룩, 밀리터리룩, 랜셔리룩 등과 혼합
되어진 형태이다. 이런 특징들이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
나며, 이는 스타리트의 다양한 문화와 젊은이들이 저
항하는 바가 그런지 패션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음
을 말해준다.

2) 지역별 분석
각 나라의 문화와 예술,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므로
스타리트 패션의 그런지 역시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2년 3월~2003년 6월까지 직접 활동하거
나, 패션, 인터넷 등을 통해 거리패션 사전을 수집하
한 후, 이 중 그런지의 조형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외
북의 착용자 총 109명(일본 43, 유럽 37, 한국 29명)
을 선정했다. 다음의 <표 2>는 이들이 착용한 1149개

<table>
<thead>
<tr>
<th>지역</th>
<th>특성</th>
<th>대표적 스타일</th>
</tr>
</thead>
<tbody>
<tr>
<td>일본</td>
<td>일반</td>
<td></td>
</tr>
</tbody>
</table>
- 도쿄는 코스프레(costume play), 강구로(Ganguro), 원래의 그것보다 요란하게 치장한 평크(punk)를 비롯한 장식적이고 과장되고 대화적 요소들이 가미된 개성 있는 스타리트 패션의 강세이며, D.I.Y 방식으로 직접 옷을 오潖 소품을 만들어나 뒷자락 의상을 리폼하는 것을 즐김  
- 절서 과일적이고 위장 패션으로 가득한 일본에서, 최근 몇 년간 스타리트 패션의 근간이 되는 것은 레이어드, 믹스 매치드되고, 넘어 보이는 그런지라고 할 수 있음  
- 뒷지락이나 남고 구멍 난 것을 개조하지 않고, 상식적인 조화를 개조하지 않으며 구멍나있고 몸을 해드는 그런지를 다른 여러 요소들과 믹스함 |
| 유럽 | 일반 |  
- 신사와 평크의 나라이 보수성과 과격한 갈보성을 동시에 가진 영국은 독특한 스타일의 스타리트 패션의 강세가  
- 반제도적인 평크축적 존재하는 런던은, 자유롭고 격식에 억제되지 않으며 조금은 남루한 스타일을 즐기는 편임  
- 파리, 밀라노 등 유럽 도시들에서는 빛나는 외부의 그런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레이어드 스타일, 패러블을 찾아낸 해냄 아이템, 형식이진 미리, 나트 보자 등이 강세  
- 밀리티리 그런지와 같이 다른 복들과 믹스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한국 | 일반 |  
- 유행에 민감하다면 지나치게 빠는 것은 즐기지 않음  
- 90년대 후반에는 미니멀, 메이플처럼 고급스러운 보이는 패션으로 저향했으며 10~20대 사
  이에서는 힙합패션의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 특히 순화된 형태의 혼합인 ‘세미(semi)힙합’  
  이 ‘뉴베이직(new basic), 아메리칸 트레디셔널(American traditional)’ 개념을 혼용하면  
  서 유행  
-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메리칸 캐주얼로부터 유리미안(European)과 일본스타일로 변화하  
  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그런지 스타일도 함께 수용되기 시작  
- 초반에는 힙합과 믹스된 그런지가 강세를 보이다가 뒷자락 의류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  
 는 추세이며, 의상의 레이어도 보다 자유롭고 과감하게 변화하고 있음 |
아이템(일본 436, 유럽 306, 한국 407개)를 토대로 분석한 지역별 특성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클럽(Club)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인더문화, 인더문화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거리문화의 변화에 일조하였으며, 이들과 연계어로 기반한 옷차림들은 한국의 스타일 패션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각 도시에 따르 스타일의 차이도 보이고, 서울 스타일이 비교적 제일하고 고급스러운 것을 즐기는데 비해, 남부에서 내려갈수록 화려하 고 과한 면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스타일도 차이 보인다. 한편, 과식적이 고 과장된 허발에서 너덜너덜한 그린지로의 이행은 IMF 이후의 지속적 경기침체와도 관계하지 않다.

앞서 수집한 거리패션 사진에서 선행된 109명이 착용한 1148개 아이템에 각각 사용된 컬러의 출현빈도와,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성을 분류해 통계로 보았다.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믹스매치 레이어와 반티지며, 컬러 사용빈도는 <표 3>에서 나타나듯 블루, 블랙, 화이트, 브라운, 그레이, 카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태지역에 비해 조형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으며 조사된 거의 모든 사진에서 갤도 높은 믹스매치와 레이어가 발견된다. 유럽과 미국 지역 역시 믹스매치 레이어링의 브로슈가 가장 높으나 레이어링 정도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며, 반티지 블루 테일링 아이템이 태 지역보다 많이 발견되었다. 한국은 태지역에 비해 간관적으로 그린지의 조형적 특성이 약하게 드러나는 대신 평균, 세미평행과 믹스매치 순화된 그린지가 많았다. 컬러 사용에서는 데님아이템으로 인해 블루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블랙은 블랙과 더불어 남녀를 불문하고 전 지역의 다양한 아

<표 3> 2000년대 일본, 유럽, 한국 스타일 패션 그린지의 컬러 비율 비교

<table>
<thead>
<tr>
<th></th>
<th>일본</th>
<th>유럽</th>
<th>한국</th>
</tr>
</thead>
<tbody>
<tr>
<td>1</td>
<td>black</td>
<td>② blue</td>
<td>⑦ yellow</td>
</tr>
<tr>
<td>2</td>
<td>red</td>
<td>⑧ green</td>
<td>① white</td>
</tr>
<tr>
<td>3</td>
<td>brown</td>
<td>⑨ grey</td>
<td>⑥ beige (light ocher 포함)</td>
</tr>
<tr>
<td>4</td>
<td>khaki</td>
<td>⑩ pink</td>
<td>⑤ navy (purple)</td>
</tr>
<tr>
<td>5</td>
<td>violet (purple)</td>
<td></td>
<td></td>
</tr>
</tbody>
</table>

3. 2000년대 하이 패션의 그린지

90년대 이후로는 유독 흔드는 옷머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하이패션에 아닌 스타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들의 혈이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의 구매력도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때문에, 스타일 패션은 하이패션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즌이 거듭됨수록 하이패션의 전통적 디자인은 박스의 위성에서도 스타일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다수의 프레타 포르테 디자이너들의 작품에도 스타일 포트를 반영
하고 있으며, 일부 디자이너들의 경우 완벽하게 스트리트화된 컬렉션 선보이기도 한다. 10년 전 그러니
를 벨기에로 끌어모인 마크 세이클스, 안나수이, D&G, V.웨스트우드 등이 임질을 더욱 극히 그런지
를 반영한 컬렉션을 선보일 뿐 아니라, 도나카란치처럼 그러니와 무관할 것 같은 디자이너들도 그런지의
상징을 만들고 있다. 그 밖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런지의
의상이 많게 등장하는데, 이는 패셔니스트의 음악과 90년대 초 그러니 패션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2000년 이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남고 구명 난 소재, 낙서 프린트, 격식들
양식의 미스매치 레이어, 천천히 마치리한 허리签订了
해체. 아방가르드가 무진 독특한 그러니의
상징으로 빈티지 데님, 형결로 머리, 리바이 슬리브
드, 북극동 묘미의 원피스, 군용복 부츠 같은 아이템
들이 그러니가 아닌 다른 아이템들과 믹스되어 단순화
된 형태로 무대에 오른는데, 때때로 그러니와 상반되
는 이미지의 엽서리하고 깔끔한 아이템들과 믹스되
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러니는 패션계가 더욱 많은 가
능성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그림 3, 4).

1) 지역별 분석
2000년대 이후, 즉 00 S/S - 03 S/W까지의 8개 시즌
을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의 4개 프레타포르테 컬
렉션으로 나누어 그러니 추이를 분석했다. <표 4>에
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의 특성은 지닌 의상들은 대체
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02년도에 4개의 컬렉션
모두에서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으며, 03 S/S시
즌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F/W시즌이 되면서 다시 증
가했다. 전반적으로 S/S보다는 F/W 시즌에 그러니
의상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패치워크와 믹스매치
레이어링 아이템들의 증가 때문이다. 이중 파리에서
는 벨기에와 일본출신 디자이너들의 전위적이고 해
체주의적인 의상들에 편승한 그러니를 찾아볼 수 있
었고, 세련된 미니멀이 놀길 끝난 밀라노는 01-02
년에 보다 대체로 스타일이 발아지면서 그러니 믹
스된 의상들도 늘어났다. 뉴욕은 그러니의 발상지인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스타
일을 고수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해 지속적으로 그러
니 컬렉션의 등장하고 있다. 런던은 전위적인 신디
자여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이들의 컬렉션에 등
장하는 그러니의상들로 인해 대체적으로 쁘 지역보
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 디자이너별 분석
앞서 분석한 8시즌 4개 지역 컬렉션을 중심으로, 그
런지의 반도와 강도가 높은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각
디자이너들이 제안한 그러니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5>는 2000년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주로
사용한 그러니의 감도, 조형특성, 아이템, 컬러
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해체적 디자인과 아방가르드
한 디자인은 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
하여 2000년대 하이패션계의 본격적 특성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현재 스트리트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특성이지만 스트리트 패션과의 연계도 점
차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패션의 컬러시용은 스
트리트에 비해 색의 분포가 넓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
며, 디자이너의 선호와 유행에 따라 컬러의 사용 반도
는 시즌별, 디자이너별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table>
<thead>
<tr>
<th>디자이너/언어</th>
<th>지역</th>
<th>시즌</th>
<th>강도</th>
<th>조형적 특성</th>
<th>주 아이템</th>
<th>컬러</th>
<th>조형미</th>
</tr>
</thead>
<tbody>
<tr>
<td>마크 제이콥스</td>
<td>뉴욕</td>
<td>009w</td>
<td>중</td>
<td>블랙, 스트리트풍의 디자인</td>
<td>코트, 재킷, 셔츠, 스포츠, 스니커즈, 터치업</td>
<td>w, b, g, k, p, ps</td>
<td>탄성, 척추, 키치, 후조화, 빨강</td>
</tr>
<tr>
<td>존 갈리아노</td>
<td>파리</td>
<td>01s</td>
<td>강</td>
<td>바이어스 이용해 해체적 그레이, 미완성적 마무리</td>
<td>스키트, 티셔츠, 재킷, 베타, 코트, 부츠</td>
<td>b, w, g, gr, r, ok</td>
<td>탈색서, 키치, 공생, 후조화, 미완성, 검증</td>
</tr>
<tr>
<td>돌체 앤 갈바나</td>
<td>밀란</td>
<td>01f</td>
<td>강</td>
<td>미완성의 마무리, 첩어진 대담한 헤어, 현대의, 트렌디한</td>
<td>다큼팬츠, 스키트, 스포츠, 티셔츠, 머플러</td>
<td>b, br, bl, gr, p, r</td>
<td>절충, 대담, 빈곤, 후조화</td>
</tr>
<tr>
<td>아르나</td>
<td>밀란</td>
<td>02w</td>
<td>중</td>
<td>동굴, 보소스적인 소프트 그레이로, 미스테리의 레이어링</td>
<td>스키트, 티셔츠, 슬랙, 코트, 레깅스, 부츠</td>
<td>w, p, b, bl, ps</td>
<td>절충, 후조화</td>
</tr>
<tr>
<td>드리스 반 노론</td>
<td>파리</td>
<td>02w</td>
<td>강</td>
<td>에스닉한 디자인, 레이어드 그레이, 미완성적 마무리</td>
<td>스키트, 티셔츠, 슬랙, 코트, 레깅스, 부츠</td>
<td>br, w, k</td>
<td>절충, 대담, 빈곤, 후조화, 키치</td>
</tr>
<tr>
<td>안나 수아레</td>
<td>뉴욕</td>
<td>03w</td>
<td>중</td>
<td>동굴, 보소스적인 소프트 그레이로, 미스테리의 레이어링</td>
<td>스키트, 티셔츠, 슬랙, 코트, 레깅스, 부츠</td>
<td>b, bl, v</td>
<td>절충, 대담, 공생, 후조화, 키치</td>
</tr>
<tr>
<td>마크 코어스</td>
<td>파리</td>
<td>02w</td>
<td>중</td>
<td>동굴, 보소스적인 소프트 그레이로, 미스테리의 레이어링</td>
<td>스키트, 티셔츠, 슬랙, 코트, 레깅스, 부츠</td>
<td>b, b, v</td>
<td>절충, 대담, 공생, 후조화, 키치</td>
</tr>
<tr>
<td>알레산드로 맹라</td>
<td>불가리아</td>
<td>03w</td>
<td>중</td>
<td>동굴, 보소스적인 소프트 그레이로, 미스테리의 레이어링</td>
<td>스키트, 티셔츠, 슬랙, 코트, 레깅스, 부츠</td>
<td>b, p, w</td>
<td>절충, 공생</td>
</tr>
<tr>
<td>베틀 조손</td>
<td>뉴욕</td>
<td>02w</td>
<td>강</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 v, r, k</td>
<td>탈색서, 키치, 공생, 후조화, 대담, 절충</td>
</tr>
<tr>
<td>마구엘 에드모스보니</td>
<td>뉴욕</td>
<td>03w</td>
<td>강</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 br</td>
<td>탈색서, 키치, 공생, 후조화, 대담, 절충</td>
</tr>
<tr>
<td>비비안 헤든스보우</td>
<td>뉴욕</td>
<td>03s</td>
<td>강</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 v, r, k</td>
<td>탈색서, 키치, 공생, 후조화, 대담, 절충</td>
</tr>
<tr>
<td>장 풀고트예</td>
<td>불가리아</td>
<td>02w</td>
<td>강</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 v, r, k</td>
<td>탈색서, 키치, 공생, 후조화, 대담, 절충</td>
</tr>
<tr>
<td>발크 롤렌</td>
<td>뉴욕</td>
<td>03w</td>
<td>중</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 br</td>
<td>탈색서, 키치, 공생, 후조화, 대담, 절충</td>
</tr>
<tr>
<td>도나 카란</td>
<td>뉴욕</td>
<td>03w</td>
<td>중</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 br</td>
<td>탈색서, 키치, 공생, 후조화, 대담, 절충</td>
</tr>
<tr>
<td>와이 언 캐시</td>
<td>뉴욕</td>
<td>02w</td>
<td>강</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 br</td>
<td>탈색서, 키치, 공생, 후조화, 대담, 절충</td>
</tr>
<tr>
<td>나클라스 게스페르</td>
<td>뉴욕</td>
<td>03s</td>
<td>강</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 br</td>
<td>탈색서, 키치, 공생, 후조화, 대담, 절충</td>
</tr>
<tr>
<td>레이 샐리지</td>
<td>뉴욕</td>
<td>02w</td>
<td>강</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o, w, bl, gr, r, b</td>
<td>미완성, 탈색서, 후조화, 키치, 빈곤, 대담</td>
</tr>
<tr>
<td>코송</td>
<td>서울</td>
<td>02w</td>
<td>강</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r, b, g, w, bg, o</td>
<td>대담, 절충, 후조화</td>
</tr>
<tr>
<td>우울라</td>
<td>뉴욕</td>
<td>01w</td>
<td>강</td>
<td>한복, 첩어진 대담한 헤어</td>
<td>원피스, 셔츠, 스키트</td>
<td>bl, r</td>
<td>탈색서, 대담, 공생</td>
</tr>
</tbody>
</table>

컬러명: w=white bk=black b=blue r=red y=yellow g=green gr=grey br=brown p=purple v=violet kh=khaki o=orange gb=brownbg y=peach p=pastel colors
V. 그린지 패션의 조형미

앞서 분석한 조형적 특성을 통해 그린지가 인터
패션과 다원적인 패션으로의 몇 가지 조형미를 가
지고 있음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인터패션은 주류문
화와 패션의 형식적에 적응 못하고 소외와 착안
을 느끼던 소수집단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만들어 내는 움직임이며, 기존 패션뿐 아니라 사회,
문화에 대한 반항을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방법
과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터패션은 기존의 정
체된 패션에 의의적 충돌을 주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그린지는 90년대의 대표적
인 인터패션으로, 여타의 청년 화방문화가 보여주는
인터넷의 전형적 형식들과 같이 기존의 질서에 대
한 거부와 파괴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의 질서
파괴적인 조형미와 조형미는 결과적으로 패션
의 다원화와, 문화의 다양화를 달성하는 기계를 마련
했다. 그린지가 가진 조형미는 다음과 같다.

1. 발집서(脫秩序)의 미

그린지는 기존의 미적 질서와 규범을 부정한다. 세
련된 비례, 조화, 균형, 통일, 고급스러움, 고상함, 깨
끗함과 같은 기준들, 기존 패션의 추구하던 세련된
듯이 장식, 텔레비전 시대는 단순히 그것, 그것은 단순
한 것도 거부한다. 대신 이전에는 추구하던 여겨졌던
빈곤, 미완성, 부조화, 저속 등과 같은 반미학(反美學)
적 개념에서 미를 도출해내며, 창작형태에 있어서도
탈집서적 복성을 드러난다.

2. 부조화의 미

그린지는 ‘한 발’의 개념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
화로워야 한다는 ‘토털 패션’의 개념을 부정하고, 어
솔리지 스타일과 같은 단발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민스
매치하여기 기존 패션이 지향하던 조화로운 형
태·비례감·통일감에 어긋나는 부조화를 통한 조화
비를 추구하였다. 질감, 무늬, 색깔, 형태의 모든 요소
가 다른 소재간의 패치워크는 민스매치레이어의 보
여준 부조화의 조형미를 더욱 강조한다. 이질적인 요
소들간의 민스매치 해어링의 조형미는 이전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개념였으나, 그린지 이후 현
재까지 코디네이션의 기본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3. 미완성의 미

그린지는 미성으로 완성된 상태로 착용되어야 한
다는 개념도 거부한다. 올센형, 케이잠, DIY 등을 통해
‘미완성(未完成)의 미(美)’가 표현되고, 완성된 것이 완
전한 것은 아니며, 완전한 것이 최상의 것은 아니라는
그들의 대안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미완성적인 옷은
불완전한 시대상이 가져다 준 심착, 불길적인 허두주의
에 비롯된 인물의 미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스스로
만들어 난 불완전한 의상들을 통해 그들의 반항정신
과 함께 자유를 지향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 카치의 미

대표적 인터패션의 헤비와 헤이피가 각각 공격성과
회피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린지는 사회의 부조화에
대한 공격이나 회피 대신 자주와 불참조 방법을 통해
유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린지의 사회비판과 조
항적인 낙서 의상들은 의도적으로 세구려, 혹은 속
된 것처럼 보이거나 하는 전형적인 카치패션의 형태
를 보여준다. 언어호이의 의도적으로 저속한 이미지
를 도출하고 있으며, 가난해 보이는 의상을 통해 자
신들의 불길적, 심각한 곤혹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의 부조화, 고
전적 설계에, 질량학주의로의 대한 역설적 표
현으로, 완벽한 가치에서 벗어나가고 하는 미학이 포
합되어있다. 이러한 그린지의 스타일은 완전 뿐 아니
라 창작 태도에 있어서도 용기를 수반한 자유와 저항
이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패션과 가치에 대한 대안적
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 대안의 미

기존 음악에 대한 ‘대안’ 역할은 하였던 그린지는,
패션에 있어서도 기존패션의 미의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주류의 정통 헤이패션뿐 아니라 비주류
적, 반미학적, 패션적인 스타트로 스타일로 변화해
가는 대안패션의 개념을 확산시켰다. 절반적인 시대
상에 그린지가 내놓은 대안은 “남은 옷을 입고, 헤트
러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지 패션만이 아닌, ‘삶을 살아가
는 태도’ 이기도 했다. 남은 옷을 자주고 해메 새로운
옷으로 만들고, 자신을 재활용하는 그린지 스타일은
당시의 경기침체와 홍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되었으며, 패션의 주요원인 착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자신들의 스타일을 만들게 되므로 여기서 진정한 대안으로서의 스트리트 패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6. 절충의 미

그런적 패션은 그런적 음악이 그랬듯 고정적인 형식이나 질서를 고집하지 않고 개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다원적인 특성을 포용하며 점차 절충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갔다. 외적 요소가 아닌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함축되어 있으며, 그런적 중요 형식에서 자유로우므로 그런적의 스타일은 통합의 거리 길이와 같이 평행하고 나약할 수도, 한편으로는 반합일이도 과장일이도 수도 있었다. 또한 한 사람의 스타일 안에 드레스와 문화, 꽃무늬 블라우스 와 벅어진 청바지가 공존하기도 하는 스타일 안에서의 절충에서는 초과매력을 추구하는 과거패션에 대한 대안이 발견된다. 그런적은 90년대 이후의 해제주의,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더니즘, 속옷의 결합과 같은 하이패션의 ‘패션 헤일링’ 흔드는 일조하며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결과 사람들은 더 많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스스로 그것을 절충할 수 있게 되었다.

7. 공생의 미

그런적은 패션 자체로서도 다원적인 특성을 포용하고 있음을 뿐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는 문화의 다원화를 패션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현대의 다원주의는 동시대에도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해나가게 만들었다. 패션의 음악’ 역시 단지 공존(共存)하려는 것이 아닌 서로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는 ‘공생(共生)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다양한 음악과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믹스되어 만들어진 그런적이음과 이것에서 영향을 받아 생겨난 그런적 패션이다. 결과적으로 그런적이 가지는 조형성과 조형미의 특성은, 90년대 이후 하이패션계의 디자이너들이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스트리트 패션이 패션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하는 것과,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주류 하이패션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각적인 스트리트 패션은 이미 대안의 수준을 넘어 서, 또 하나의 거대한 주류 패션이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현대의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혹은 상위 패션과 하위 패션, 패션과 반패션은 주종(主從)적 대립 대신, 다원적인 방향의 교류가 가능한 공생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VI. 결론

협, 화려함, 독과 같은 과시적 가치를 선양했던 80년대 사람들의 달리, 경기 체제, 환경 파괴, 무기력과 질망에 빠져 있던 90년대 사람들이 선택한 대안은 지지부진하고 보기 없는 ‘그런적’이었다. 그런적이 의해 80년대의 화려화와 과장된 과수는 구름 나고 빗친 날이 올들로 대체되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화롭게 코디된 토폴 목은 색상과 소재, 무늬, 아이템을 제멋대로 해어렴한 박스매치 목록으로 대체되었다. 과격한 속에 상처받은 내면을 숨기고 있던 거리 걸음이, 악기를 부수며 치유하는 뮤지션들, 하이패션의 모델들 모두가 그런적의 대상이었다. 비록 90년대의 그런적이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이후 패션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깨끗함, 단순함, 갓바람, 새로운 패션과 같은 요소가 아닌 셔거나 낙관, 그것은 거리 청년들의 스타일, 단정하지 못한 미완성과 같이 과거에는 가치 없다고 느꼈던 것들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미를 찾아낸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나 스타일, 전통의 가치도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패션은 점점 하이패션의 전유권이 아닌 다원적 형태로 전환될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젊은 대중의 힘의 커짐에 따라 그들의 문화적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90년대 초 세계 패션계의 판도를 바꾸었던 그런적은 90년대 중반 이후 창작기를 기치 2000년대의 패션계에 재등장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환, 변형된 2000년대의 그러지는 주류문화 및 삶과 결합하여 큰 성공을 이 nouve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틀어잡혀 준다.

그런적은 이처럼 대안으로 시각된 거리출신 문화, 하위문화 그리고 소수문화의자리라도 주류문화와 패션
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다
원적인 요소들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아
직까지 주류의 유행과 반지르트한 길모습이 마치 절
대선(絶對線)이나 절대가치라도 되는 것처럼 명심하
곤 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기존의 가치질서에 대한 도전과 대안의 의미를 가
겼던 그런지 패션은, 길모습이기 이전에 정신으로서
의 패션이며, 형상화된 하나의 옷이나 드레스코드
(dress code)기 이전에 이 시대의 질문이들이 옷을 입
고 살을 살아가는 태도이다. 패션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숨은 가치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패션의 뿌리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여왔던 그런지가 한 시대의 정신을 담은 자화
상이자 지금 우리 시대의 초상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을 만들기 가며, 한없이 정체되고 정체된 주류문
화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자 했다.

이 연구가, 미쳐 까닭을 못했던 숨은 가치들과 그
다원적인 특성을 발견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고, 나아가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또는 주류문화
와 하위문화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지영. (2000). 현대 영국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
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정현. (1997).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활용패션디자인에 관
한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 논문.
판사.
런던이 런던다운 이유. (1999). vogue korea, No 36. 서울: (주)
두산출판사.
울: 한나래.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 논문.
대학원.
정진영. (2002). 벨기에 패션디자인의 반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석사 논문.
두산출판사.
Prestel.